

회화에 담긴 행복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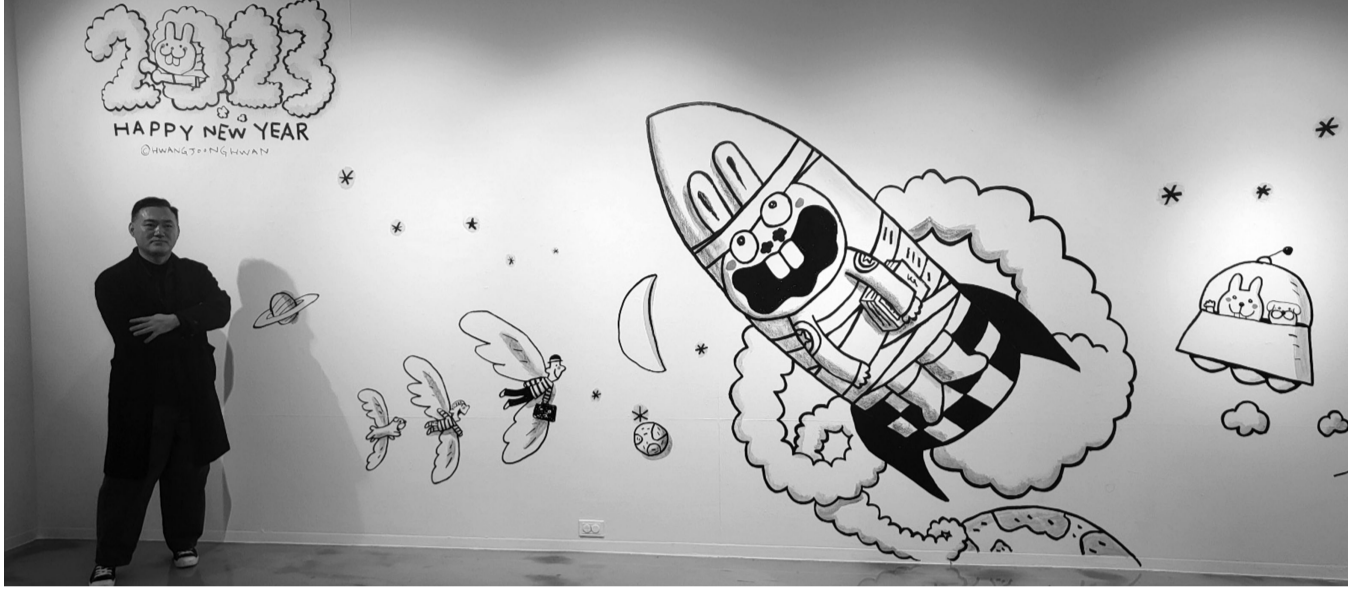
광주롯데갤러리 내달 19일까지
황중환 작가 초대전 '마법의 순간'
희망·위로·사랑 메시지 담은 신작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담긴 질문일 지 모른다. 2억3000만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책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책에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비밀은 현재에 있네.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를 더욱 나아지게 할 수 있지. 현재가 좋아지면, 그다음에 다가오는 날들도 마찬가지로 나아지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영겁의 세월이 깃들 어 있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광주 롯데갤러리에 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지 모른다. 파울로 코엘료의 메시지가 담긴 황중환 작가 초대전 '마법의 순간 (A Miracle Moment)'에서다.

따뜻한 감성의 카툰리스트로 유명한 황중환 작가는 국내·외 베스트셀러가 된 파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진행중인 황중환 작가 초대전 '마법의 순간'.

광주 롯데갤러리 제공

울로 코엘료와 함께 펴낸 '마법의 순간(A Magical Moment)' 뿐 아니라 '당신이 희망입니다',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 '아픔을 돌보지 않는 너에게' 등 글·그림을 담은 에세이스트로도 유명하다. SNS를 통해 코엘료와 소통했던 것을 계기로 몇차례 작업을 그와 했던 황 작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따스하면서도 울림이 있

는 위로를 시와 그림 속에 담아왔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황작가의 초대 전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선보여왔던 다양한 장르 중 행복과 사랑, 새해 소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회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황 작가의 아내와 아들이 함께 완성한 벽화를 비롯해 향후 선보이게 될 작품까지 알차게 구성했다. 의인화된 토끼

가 등장해 지구와 가족, 모든 이의 일상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신작 '우주토끼', 'Miracle Moment', 'Magical Moment', 'skfro'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파울로 코엘료와의 공저 '마법의 순간' 수록작 '운명을 당겨라'와 '웃는식탁', 작가의 저서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의 '나는 언제나 네 편이

란다' 등이 소개돼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원화를 만날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황중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림을 감상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참여하는 전시, 일상 속 소중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림을 선보이고자 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긴 팬더믹과 여러 사회적 어려움들로 지친 관객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 위로를 선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광주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작가의 특강 '만화가가 들려주는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중환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졸업 후 광고디자이너로 일했으며, 이후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14년간 3015회의 카툰을 연재했다. 청와대, 한국은행,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유니세프, 서울 아산병원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현재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 '이동재·장범순' 2인전

이동재, 장범순 두 작가의 재치와 유머가 담긴 초대전 '나와 나타샤와 힝당나귀(사진)'가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에서 열린다.

아트디오션 갤러리에 마련되는 이번 전시는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힝당나귀'에서 화자가 사랑하는 나타샤를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순수하고 환상적인 사랑에 대한 소망을 표출하듯 두 작가의 작품에서 작가들만의 메시지와 고유한 화풍이 펼쳐진다.

'개 작가'로 유명한 대구 이동재 작가는 'Good Friends'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개와 사람을 등장시켜,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담아낸다.

사람과 개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친구'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이동재 작가는 "제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우연히 개에게서 큰 위안을 얻게 되어 그때부터 개가 인간에게 정말 좋은 친구라는 의미에서 'Good Friends' 작품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반려견과의 삶과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다.



삶과 현실의 이야기를 날카롭고 재치 있게 풍자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장범순 작가는 지난해 5월 아트디오션갤러리에서 '나의 구원으로서의 미술'이라는 주제로 아트 토크를 진행한 바 있다.

상실과 단절의 시대에 위안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재미있는 미술 활동 방법과 담론을 펼쳤다. 아트 토크에서 보여준 열정을 전시작품에서 잘 느낄 수 있다. 그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풍자들은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준다.

전시는 여수 디오션호텔 1층 로비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뉴스

국립광주과학관, 2월 겨울방학 캠프 프로그램

청소년 환경캠프·가족캠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직무대리 전태호)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대상 환경 캠프와 겨울방학 가족캠프를 개최한다.

환경캠프는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지정 프로그램인 '내가 초록지구를 위협한다고?'와 '플라스틱의 새로운 발견'의 내용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활동이다.

초등학교 3~6학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환경캠프는 비숙박형으로, 1기(8일 ~

9일)와 2기(15일 ~ 16일)로 운영되며 각각 2일, 9일까지 모집한다.

11일과 12일 운영되는 겨울방학 가족 캠프는 과학관에서 하룻밤을 묵는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캠프 프로그램은 '코딩으로 하는 달탐사', '날아라 에어로켓' 등 전문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별빛전문대의 1.2m 주망원경과 고성능 천체망원경을 통해 겨울밤 하늘을 직접 관측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2월 9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포함된 2인에서 6인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상지 기자

유물로 살펴보는 남아시아 역사·문화 여행

ACC '아시아 박물관 산책' 3월8일부터 격주 수요일 강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과 남아시아 각국의 박물관 전시물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한국과 교류사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3월8일부터 6월 14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ACC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4에서 '아시아 박물관 산책2(남아시아·사진)'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ACC가 호남문화재단연구원, 아시아인문재단과 공동으로 마련한 강좌의 첫 시간은 인하대 최중기 명예교수의 '남아시아의 자연환경'이다.

이어 22일에는 부산외대 이광수 교수가 '인더스 문명 아래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밖에도 남아시아의 종교(윤용복 아시아종교연구원장), 간다라 미술(최인선 순천대 교수), 아시아 스투파의 기원과 변천(전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 대항해시대의 남아시아(이우순 연세대 교수),

카스트 제도의 변천(김경학 전남대 교수)을 화두로 한 강의가 시민을 찾아가는 마지막 시간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의 '남아시아와 한국의 미래'가 마련돼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은 "이번 박물관 산책이 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우리나라와 교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아시아문화가 담은 다양성의 가치를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www.acc.go.kr)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누구나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박상지 기자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성공 개최"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협약 보문복지재단 참여 상호협력

(재)광주비엔날레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보문복지재단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재)광주비엔날레는 31일 오전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재단 사무동 3층 회의실에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원장,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본전시 이외에 9개국에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참여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파빌리온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이탈리아 파빌리온은 보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동곡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이탈리아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를 위하여 보문복지재단은 2000만원의 후원금을 광주비엔날레에 전달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공동 전시 계획 및



31일 광주비엔날레 3층 회의실에서 박양우(가운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와 미켈라 린다 마그리(왼쪽)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원장,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이 3차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추진을 통한 각 기관의 문화예술 사업 발전기여 △상호 전시 개최를 위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각 기관의 우호 증진 및 공동 협력 등을 목표로 한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2018년 시작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올해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며 "국가 파빌리온 중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보문복지재단이 협력해 진행하는 이

탈리아 파빌리온은 양 기관이 상호 전시 개최를 위한 협력의 자리를 마련한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원장은 "199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 굳건하게 자리매김한 광주비엔날레와 협력해 이탈리아 작가들을 소개하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양국이 더욱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62)608-4330. 박상지 기자